

‘메호대전’ 이번엔 누가 웃을까

메시-호날두 챔피언스리그서 10시즌 만에 대결 성사



메시

세계 최고의 축구선수 자리를 놓고 치열한 '자존심 싸움'을 이어온 리오넬 메시(33·바르셀로나)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유벤투스)가 10시즌 만에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격돌해 팬들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UEFA는 2일(한국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2020-2021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조 추첨을 했다.

메시가 뛰는 바르셀로나(스페인)와 호날두가 활약하는 유벤투스(이탈리아)가 나란히 G조에 편성됐다.

호날두가 2018년 7월 레알 마드리드를 떠나 유벤투스로 이적하면서 메시와 호날두가 직접 맞붙는 일명 '메호대전'은 2018년 5월 6일 프리메라리가 무대에서 벌어진 이후 성사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바르셀로나와 유벤투스가 2020-2021 UEFA 챔피언스 조별리그 G조에서 경쟁하게 돼 메시와 호날두의 메호대전도 2년 5개월여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상대전적 '메시 16승 > 호날두 10승...메시 22골 > 19골 호날두'

메호대전이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성사된 것은 2010-2011시즌 이후 무려 10시즌이자 햇수로

역대 통산 35차례 맞붙어

메시 16승 > 호날두 10승

9년 6개월여 만이다.

메시와 호날두는 대표팀(2경기)과 클럽팀(33경기)을 합쳐 통산 35차례 맞대결을 펼쳤다.

지금까지 맞대결에서 메시가 16승 9무 10패로 호날두보다 우위에 있다. 득점에서도 메시가 22골을 뽑아내 호날두(19골)를 앞선다.

UEFA 챔피언스리그만 따져도 지금까지 5차례 만나 메시가 2승 2무 1패로 앞선다.

두 선수의 UEFA 챔피언스리그 맞대결에서는 메시가 3골을 작성했지만, 호날두는 아직 무득점이다.

프리메라리에서는 18번 만나 메시가 10승 4무 4패로 우세했다. 득점도 메시가 12골로 호날두(9골)를 앞섰다.

◇챔피언스리그 '호날두 130골·5차례 우승' 메시 115골·4차례 우승'

하지만 역대 UEFA 챔피언스리그 개인 득점을 모두 따지면 호날두가 역대 최다인 130골을 넣은

가운데 메시는 115골이다.

또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은 호날두가 5차례로 메시(4차례)를 앞섰다.

메시와 호날두가 UEFA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처음 대결한 것은 2007-2008 대회였고, 공교롭게도 이것이 메호대전의 시작이었다.

바르셀로나 소속 21살의 메시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소속 25살의 호날두는 2008년 4월 홈 앤드 어웨이로 펼쳐진 두 번의 대결에서 모두 득점은 따내지 못했다. 호날두는 준결승 1차전에서 페널티킥에 실패하는 아쉬움도 맛봤다.

이렇게 시작된 메호대전은 2018년 6월 5일 '엘 클라시코'에서 펼쳐진 35번째 맞대결로 잠시 휴식에 들어갔다. 35번째 대결에서는 메시와 호날두 모두 1골씩 터뜨렸고,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는 2-2로 비겼다.

하지만 메시와 호날두는 이제 30대 중반을 향하면서 기대보다 파괴력은 조금씩 떨어져 간다는 평가다.

공교롭게도 둘은 2019-2020 UEFA 올해의 선수 최종 후보 3명의 명단에 나란히 빠졌다. 메시와 호날두가 최종 후보에 들지 못한 것은 UEFA 올해의 클럽 선수 대신 2010-2011시즌부터 현재의 이름으로 시상한 이후 처음이었다. /연합뉴스



호날두



최성환이 지난 3일 강원도 영월스포츠타크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위더스계약 2020 추석장사씨름대회에서 한라장사(105kg 이하)에 등극한 뒤 꽃가마에 앉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입대 앞둔 영암군씨름단 최성환, 추석 한라장사 등극

이주용 3-0 꺾고 통산 9번째 타이틀

최성환(영암군민속씨름단)이 위더스계약 2020 추석장사씨름대회에서 한라장사에 올랐다.

최성환은 지난 3일 강원도 영월군 영월스포츠타크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한라장사(105kg 이하) 결정전(5전 3승제)에서 이주용(수원시청)을 3-0으로 제압했다.

이달 12일 입대하는 최성환은 입대 전 마지막 대회를 우승으로 장식하며 개인 통산 9번째 한라장사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올해 민속씨름에서는 설날대회 우승에 이어 2관

왕을 달성했다.

최성환은 16강(3전 2승제)부터 상대에게 한 판도 내주지 않으며 연승을 달렸다.

허리부상이 있음에도 8강에서 김상현(문경새재씨름단)을 2-0으로 물리쳤고, 4강에서 같은 팀 후배인 오창록을 안다리과 잡채기로 쓰러뜨렸다.

이주용과 맞붙은 결승에서도 최성환이 압도적인 기량을 보였다.

첫판에서 잡채기에 이은 들배지기로 기선을 제압한 최성환은 두 번째 판에서도 자신의 주특기인 들배지기로 순식간에 상대를 제압했다.

세 번째 판에서는 팽팽한 힘 대결 끝에 뒤집기로

우승을 확정했다.

최성환은 "올해 허리 부상으로 대회도 잘 못 나가고 훈련도 힘들었지만, 조금이라도 힘들어하면 감독님이 따로 스케줄을 만들어서 훈련을 도와주셨다.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위더스계약 2020 추석장사씨름대회 한라급(105kg 이하) 경기 결과

한라장사 최성환(영암군민속씨름단)
2위 이주용(수원시청)
3위 오창록(영암군민속씨름단)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토트넘, 공격수 비니시우스 임대 영입...케인과 투톱 예상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가 백업 스트라이커 자원으로 벤피카(포르투갈)에서 활약하는 카를루스 비니시우스(25·브라질)를 선택했다.

벤피카는 2일(한국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비니시우스를 2020-2021시즌 동안 토트넘에 임대해 보내기로 합의했다. 임대료는 약 300만 유로(약 41억원)"라고 발표했다.

구단은 이어 "이번 계약에는 임대 이후 완전 이적 옵션도 포함됐다"라며 "비니시우스의 이적료는 4500만 유로(약 615억원)다. 완전 이적 계약이 발효되면 임대료는 차감된다. 이번 합의는 비니시우스가 토트넘과 계약서에 서명하면 발효된다"고 설명했다.

2018년 1월 나폴리(이탈리아) 유니폼을 입었지만 한 경기도 뛰지 못하고 리우 아비(포르투갈)와

AS모나코(프랑스)에서 임대 생활을 했던 비니시우스는 지난해 7월 벤피카로 이적했다.

그는 지난 시즌 47경기에 출전해 24골(정규리그 18골·컵대회 5골·UEFA 챔피언스리그 1골)을 작성했다.

케인의 백업 스트라이커 자원이 필요했던 조제 모리뉴 토트넘 감독은 손흥민의 햄스트링 부상까지 겹치자 비니시우스 영입을 서둘렀고, 마침내 '임대 후 완전 이적' 조건으로 영입하면서 공격진에 힘을 불어넣었다.

한편, 영국 스포츠 라디오 채널 토크스포트는 비니시우스의 영입과 함께 변화될 토트넘의 베스트 11을 전망했다. 토크스포트는 비니시우스와 케인이 투톱 스트라이커를 맡고, 손흥민과 개러스 베일이 좌우 날개로 나서는 4-4-2 포메이션을 예상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조코비치 "코트에 선심 있을 이유 없어...전자판독기 도입해야"

노바크 조코비치(1위·세르비아)가 전자 판독의 전면 도입을 주장했다.

조코비치는 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프랑스오픈 테니스대회 남자 단식 3회전에서 다니엘 엘라히 갈란(153위·콜롬비아)을 3-0(6-0 6-3 6-2)으로 꺾은 뒤 기자회견에서 "계속 선심이 있어야 할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테니스에서 전통과 같은 문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이렇게 기술이 발달한 시대에 왜 신시내티 대회나 뉴욕 대회처럼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조코비치는 이어 "기술이 발달해 있는 요즘에도 선심이 코트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 내 의견"이라고 기탄없이 주장했다.

4대 메이저 대회 가운데 유일하게 클레이코트에서 열리는 프랑스오픈은 역시 유일하게 전자 판독 시스템인 호크아이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공이 라인 근처에 떨어진 경우 주심이 코트로 내려가 바닥에 찍힌 공 자국을 육안으로 보고 판정을 내린다.

다만 이 경우 역시 선수와 심판의 의견이 엇갈릴 수 있기 때문에 올해 프랑스오픈에서도 전자 판독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조코비치는 프랑스오픈의 전자 판독 시스템 도입보다 한 발 더 나가 선심을 아예 없애고 라인 판정을 모두 기계화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그는 "지금은 비용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조만간 선심을 계속 뒤야 하는 이유가 없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코비치가 처음에 언급한 신시내티와 뉴욕 대회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무관중 경기로 진행됐고, 코트 내 인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심 대신 전자 판독을 사용했다.

다만 미국 뉴욕에서 열린 US오픈은 메인 코트에만 선심을 뒀는데 조코비치는 메인 코트에서 열린 16강전 도중 실점 후 신경질적으로 쳐 보낸 공이 선심의 목에 맞는 바람에 실격됐다.

로이터통신은 "조코비치가 선심이 필요 없다는 발언으로 선심들의 분노를 또 자극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 |
|---------|--|
| 1관 | 담보 |
| 2관 | 담보 |
| 3관 | 테넷, 죽지않는 인간들의 밤, 기기괴과 성형수 |
| 4관 | 담보, 디바 |
| 5관 | 국제수사 |
| 6관 | 국제수사 |
| 9관 | 국제수사 |
| 7관 씨네커튼 | 그린랜드, 죽지않는 인간들의 밤, 검객, 외문화 |
| 8관 씨네커튼 | 그린랜드, 검객, 디바, 극장판 포켓몬스터 무츠의 역습 EVOLUTION, 극장판 미니특공대: 햄버거괴물의 습격 |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경계의 공간

GAC기획전시
경계의공간
2020. 9.1.(화) ~ 11.1.(일)
광주문화회관 갤러리

백건우와 슈만

회관 개관29주년 기념 특별기획
백건우와 슈만
2020. 10. 20.(화) 19:30
광주문화회관 대극장

라흐마니노프

GAC기획공연 FOCUS
뮤지컬 라흐마니노프
2020. 10.16.(금) 19:30, 17(토) 17:00
광주문화회관 소극장